

# 용현동 Interacting Cube

Yonghyeon Interacting C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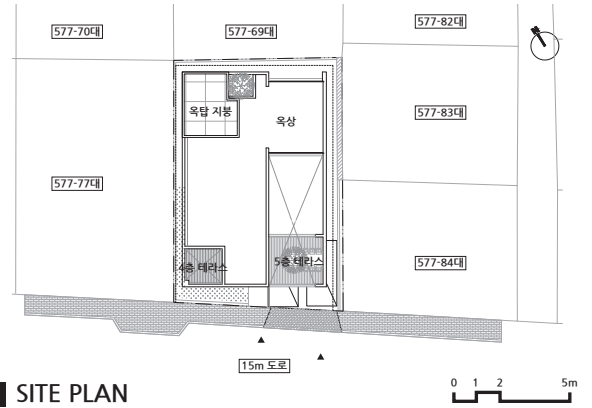
건축물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77-78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주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40.40㎡
건축면적	142.72㎡
연면적	578.13㎡
건폐율	59.78% (법정 60%)
용적률	240.49% (법정 400%)
층수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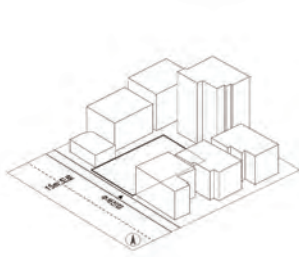


## 맥락과 조건

인천시 남구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땅이다. 15미터 전면도로를 접한 좁고 긴 직사각형의 필지이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1,2층에 카페, 3,4층에 근린생활시설, 5층에 주인주택이다. 전면도로에 접한 폭이 좁고 안쪽으로 긴 필지의 열악함을 건축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다. 좌우 뒤쪽에 인접필지가 있기에 미래에 건물이 들어서면 필지 주위가 폐쇄적으로 되는 것을 걱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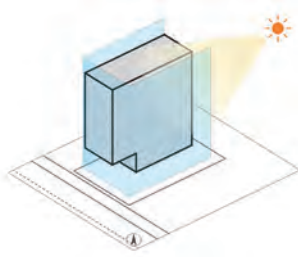


■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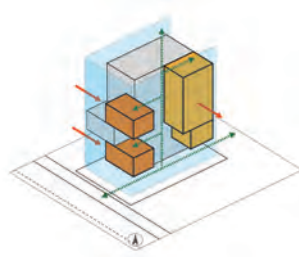
CONTEXT

좁고 긴 필지  
좌우 뒤 인접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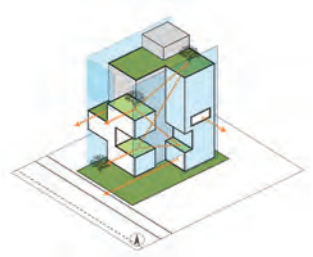
VOLUME

법적 건축면적  
자연 채광의 고려



VOID

층별 공간배우기  
수직 수평적 깊이감  
매력적인 집입  
다양한 도시풍경



INTERACTION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  
입체적인 시선의 교류  
프로그램의 소통  
자연적



주변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입면 뷰





## 열린 경계의 형태

전면도로가 좁고 긴 대지의 열악함 두고 두 가지 질문으로 계획을 시작했다.

첫째, 어떻게 가로와 열린 관계를 조직할 것인가?

둘째, 3면이 인접필지로 접한 맥락에서 어떻게 풍부한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가운데 수직 중정을 두고 프로그램 적 관계를 조직하면서 길 쪽으로 열리는 형태를 만들어 갔다. 수직적 프로그램과 중정, 길이 시각적, 공간적으로 상호 경험될 수 있게 형태를 비워 나갔다. 열린 경계의 형태는 도시가로, 중정, 사용자, 주민들 간에 상호 작용하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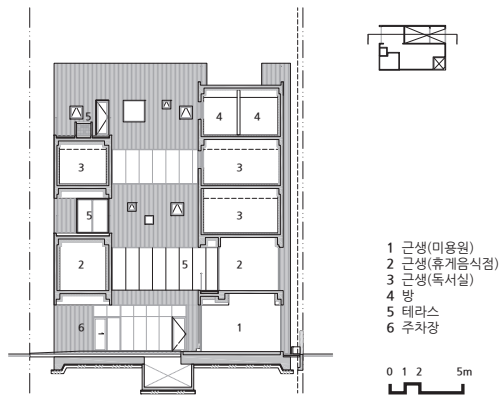


## 입체적인 소통의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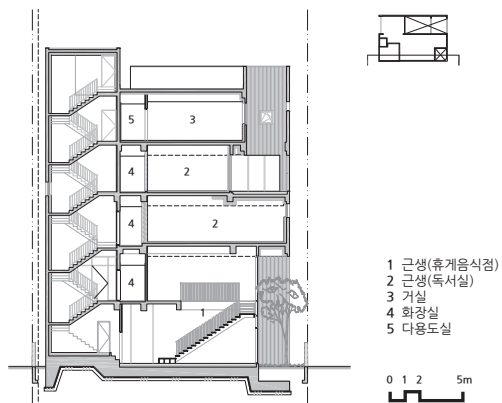
긴 필지 중앙의 중정은 수직적인 프로그램들 간의 입체적인 소통의 공간이 된다. 내부공간은 중정과 바로 이어져 풍부한 빛의 경험과 시각적 확장성을 경험하게 된다. 층별 테라스 간의 입체적인 소통은 다른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조직하면서 중정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길과도 시각적으로 연계되어 도시 풍경을 입체적이고 깊이감 있게 담아내기도 한다. 이처럼 입체적인 소통의 중정은 열린 형태의 보이드와 상호 작용하면서 공간적, 시각적, 풍경적 경험을 만들고 있다.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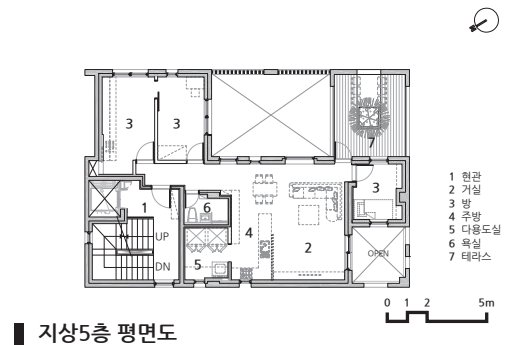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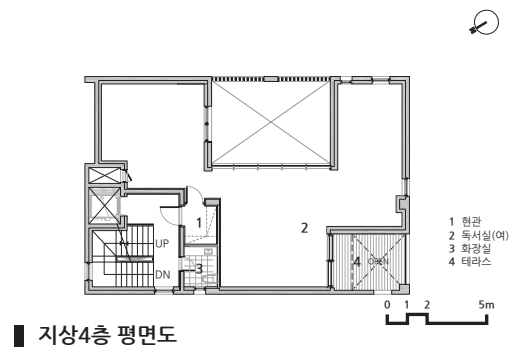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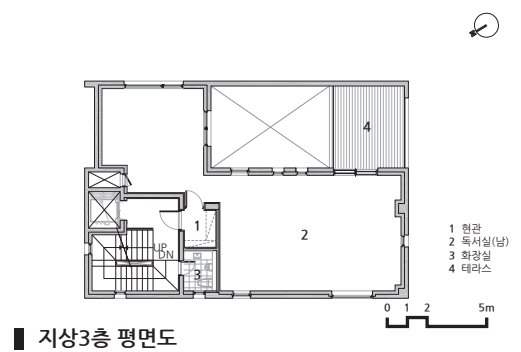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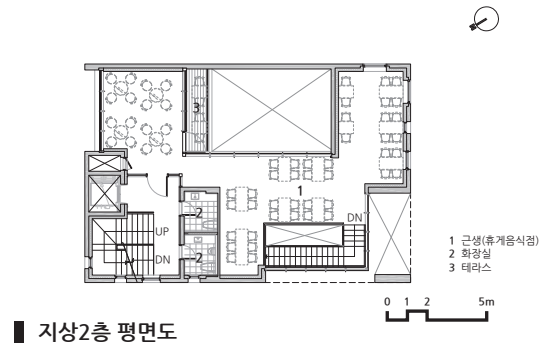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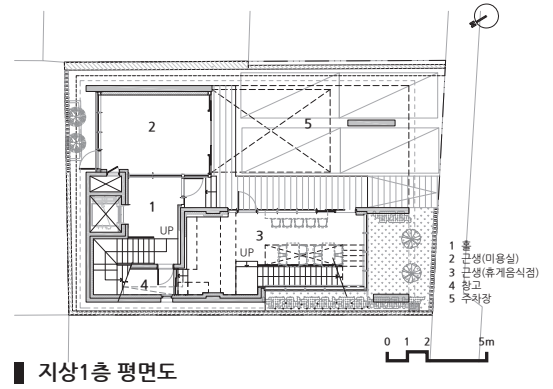


단면도-2



## 도시적 표층이 되는 보이드

길과 만나는 열린 형태의 경계는 중정이 보이는 깊이감 있는 입면이 되고 있다. 여기서 입면의 재료는 송판무늬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비워진 보이드 공간에 나무를 심어 서로 중첩된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단조로운 도심의 가로면이 아니라 풍요로운 표층의 가로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이드 공간은 층별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식으로 역할을 한다. 1, 2층의 투명한 보이드는 길과의 경계에 나무를 심어 중첩 되어 보이게 했다. 나무는 길과의 관계에서 시간과 날씨에 따라 풍부한 가로 표층을 만들게 된다. 3, 4층의 보이드는 테라스로 휴식이나 조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5층의 테라스는 경관목을 심어 휴식과 조망의 장소가 되면서 시각적 조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열린 경계의 형태의 도시 속에서 상호작용 하는 표층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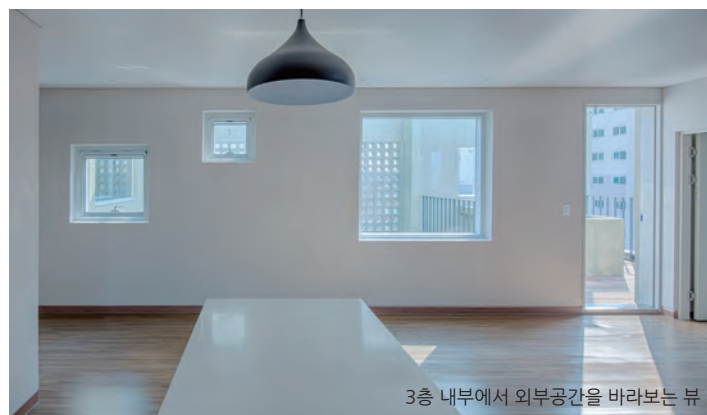




1층카페 진입해서 도로쪽을 바라보는 뷰



3층 진입해서 중정쪽을 바라보는 뷰



3층 내부에서 외부공간을 바라보는 뷰



2층 카페(도로측)에 앉아 중정을 바라보는 뷰